

# Style

조선일보

MAY 2019  
vol.189

Ermenegildo Zegna

FEATURING BOYD HOLBROOK, MILAN, 6pm  
#DEFININGMOMENTS by LUCA GUADAGNINO



TIFFANY & Co.

Tiffany T

  
*Breguet*  
Depuis 1775

Breguet La Marine  
Chronograph 5527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Constellation  
★  
Manhattan

18K Sedna™ gold with diamond-paved bezel, mother-of-pearl dial and diamond hour markers.

MASTER CHRONOMETER  
CERTIFIED.

Ω  
OMEGA

| 직영점 |

청담부티크 02-511-5797 롯데잠실점 02-2143-7266  
신세계 본점 02-310-1270 강남점 02-3479-6025  
영등포점 02-2639-1910 대구점 053-661-1811  
현대 목동점 02-2163-1283 무역센터점 02-3467-8632  
판교점 031-5170-1111 대구점 053-245-2249

# THE X7



BAYERISCHE MOTOREN WERKE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2200 BMW 럭셔리 클래스 마이크로사이트 [www.bmwluxuryclass.co.kr](http://www.bmwluxuryclass.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X7 xDrive30d Design Pure Excellence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2,480kg, 자동 8단, 복합연비 9.5km/l(도심연비 8.7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sub>2</sub> 배출량 206g/km, 4등급 BMW X7 M50d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2,555kg, 자동 8단, 복합연비 9.0km/l(도심연비 8.1km/l, 고속도로연비 10.5km/l), 복합CO<sub>2</sub> 배출량 217g/km, 5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원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14



표지의 제나 2019 S/S 광고 캠페인은 2017 S/S 부터 진행해온 결정적 순간 캠페인의 마지막 시리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영화감독 루기 구아디니 노가 알라노를 배경으로 영화 같은 세 편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이드 홀브룩, 안드레 홀랜드, 알리 업 쉐, 3명의 배우가 일상 속을 걷는 사적인 시공간을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결정적 순간을 조명했다. 이 영상은 제나의 카카오 TV 채널을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글로벌 디지털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8-0285



34



18

- 16 **SELECTION FOR HER** 워렌드 컷어웨이를 위한 우아하고 페미닌한 스타일.
- 18 **SELECTION FOR HIM** 짧은 여행을 더욱 근사하게 완성할 대체로운 아이템.
- 20 **I SALONI 2019** 역사적으로 황금시대를 이뤘던 도시들의 공통점은 창조성과 혁신성이라고 했다. 도시·지역 계획 전문가 파티 출은 "거대하고 활기차고 다국적이며, 외부인을 유입하는 매력을 지닌"이라는 긴 수삭어를 동원했다. 흔히 '살로네(Salone del Mobile)'라고 부르는 국제가구박람회를 필두로 디자인 워드가 열리는 4월의 말라노는 딱 그런 곳이다. 실제로는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1백3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디자인을 즐기는, 또는 업으로 하는 이들이 세상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듯한 아주 거대하고 대체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그 현장을 일부나마 소개한다.
- 24 **DRESS CODE** 여자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여자의 전유물, 드레스. 울퉁퉁 장식적인 아름다움,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프린트가 대체다.
- 26 **THE FASHION** 선물은 계절 5월,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을 두루 헤아려 엄선한 패션 기프트 가이드.
- 28 **THE JEWEL** 기억하고 싶은 순간, 전하고 싶은 스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주얼리 선물에 담긴 의미다.
- 30 **THE WATCH** 신중하게 선택해 선물한 시계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특별한 순간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다.
- 32 **THE BEAUTY**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올 때, 화장품만큼 예쁘고 실용적인 선물이 또 있을까?
- 33 **FUN & COOL**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선물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몽클레르가 제안하는 대체로운 액세서리 컬렉션에 주목할 것.
- 34 **COUPLE CHIC** 사프한 셔머 드레스, 레드로퐁 트렌디 슈트, 만만한 재킷과 셔츠... 초여름 파티에 딱 어울리는 프리시머 커플 룩.
- 42 **PERFECT HARMONY** 완벽한 기능과 미적인 형태의 결합. 이는 모든 면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MWC 사프하 우젠의 정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MWC는 가장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컬렉션 중 하나인 파일렛 컬렉션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 43 **SHINE ON YOU** 평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5월. 스와로브스키는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2개의 선물 리스트를 제안한다.
- 44 **ETERNAL BRILLIANCE**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보석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Golden Dew)'가 보다 새롭고 영롱한 빛을 입은 다이아몬드의 세계로 모두를 초대했다.
- 45 **EDITOR'S PICK** 사랑과 감사의 말이 넘치는 5월을 맞아 (스타일 조 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



# Style 조선일보

Issue.189 May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stylechosun.com**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이 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이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시오, stylechosun.com

# BVLGARI

ROMA

## Jewel THE CLASH

프랑스 파리의 미학적 코드를 고스란히 담았다. 까르띠에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클래식 드 까르띠에.

Paul & Henriette © Cartier



까르띠에가 5년여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아이코닉 주얼리 컬렉션, 클래식 드 까르띠에. 뽀족해 보이지만 착용했을 때 부드럽고 편안하며, 기하학적이지만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우아한 매력이다. 곡면의 윤곽선 사이로 출중하게 세팅한 스티드와 원형, 정사각형의 과감한 대비가 긴장감을 주는 매력 포인트. 파리 방돔 광장의 울퉁불퉁한 자갈길과 피라미드 형태의 루브르 박물관 앞 유리 돔을 연상시킨다. 클래식 드 까르띠에 컬렉션은 핑크 골드 소재의 아이링, 링, 네크리스, 그리고 브레이슬릿으로 구성되어, 핑크 골드 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은 마치 파리 밤거리의 자갈길에 비친 조명처럼 은은하게 반짝여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장민윤



## Fashion BLOOMING DAYS

빅 플라워 장식 슈즈로 즐기는, 두 발 위에 만연한 봄.

(왼쪽부터) 크리스탈을 세팅한 탈스로운 피오니 장식 새틴 스트랩 샌들 2만1천원대 **쥬세페 자노티**, 장미 모티프 포인트를 준 레드 컬러 새틴 펌프스 1백30만 원 **미우이우**, 발등을 덮는 벨트에 수경에 로즈 버튼을 더해 페이닌 무드를 강조한 샌들 1백27만 원 **로저 비비에**, 화려한 리본과 민트 플라워 모티프를 장식한 레오파드 톤 가죽 미팅 **자일라비스타 빌리**, 에디터 **이혜미**

포토: 박근호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 분야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Book <디자인에 집중하라>, 출간 10주년 개정판

마리와 가슴, 그리고 손으로 하는 창조적 사고방식을 21세기형 문제 해결 전략으로 삼는 디자인 싱킹의 바이블로 꼽히는 <디자인에 집중하라> 출간 10주년 개정판이 나왔다. 세계적인 창조적 혁신의 전당으로 잘 알려진 디자인 컨설팅 기업 IDEO의 CEO 팀 브라운(Tim Brown)이 쓴 책으로 10년 전 한국에 출간된 이래 경영 현장은 물론이고 디자인업계, 학계에서 디자인 싱킹의 장수에 관심 있는 이들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해왔다. 추상적으로 혁신을 외치기보다 소비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욕망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로 풀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감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평가 덕분이다. 이번 개정판은 밀감한 양장을 새롭게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에 걸쳐 IDEO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 유전자 비즈니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최신 사례를 보강해 추가 챕터로 담아내는 등 내용도 풍부해졌다. 옮긴이 고성연 기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저자 팀 브라운은 기술이 어두운 면면을 드러낼 때 인간 중심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상품과 기술을 넘어 도시와 제도, 삶과 죽음까지 디자인하려는 '디자인 싱커'다운 통찰력을 선사한다. 가격 1만6천8백원(개정판 펴냄).



## Focus 손맛이 살아있는 모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호주 리아프스카임 브렌드 헬렌 카민스카가 고객 이벤트를 진행했다. 호주 시드니 스튜디오에서 마스터 장인 캐리 비숍이 직접 방문해 행사 당일 제품 구매 고객에게 직접 제작한 미니 사이즈 시크너 처햇을 선물한 것. 한국을 방문한 캐리 비숍에게 세 가지 질문을 건넸다.

**Q** 멋을 아는 사람들의 수공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자부심이나 사랑감이 있을 듯한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링카에 있는 수많은 장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전수해 가는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나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 개월을 소모하는 일. 명맥을 이야기하며 이를 보존하는 데 더욱 신경을 기울 수밖에 없다.

**Q** 어떤이런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스트로 햇을 선보인다. 헬렌 카민스카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걸모습을 보고 스트로 햇, 즉 앞장모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라피아를 사용한다. 자부라기는 건조하고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렴한지만 모양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쉽게 피스된다. 우리는 생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라피아 잎을 수확한다. 라피아는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 장인들이 라피아 섬유를 꼬거나, 꼬버늘로 따서 오랜 기간 아름다운 모양이 유지되도록 한다. 20년이 넘는 모자를 가져오는 고객도 있다. **Q** 국내 고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과 관리 방법은? 모자를 고를 때 얼굴형을 고려하면 좋는데, 얼굴이 둥글고 체형이 이뉘다면 챙이 짧거나 중간 정도인 모자를 추천한다. 이번 시즌 제품 중에는 테소로(Tesoro)가 적당하다. 모자를 착용하지 않을 때는 크라운(모자의 둥근 부분)과 브림(챙)이 상하지 않도록 모자 전용 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피아는 자연 수치를 함유해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직사광선이나 습기는 피해야 한다. 만약 여행 시 사용할 모자가 플러블 모델이라면, 말아서 그대로 라피로 운반하면 된다. 모양이 조금 틀어졌을 때는 약간의 스팀을 가하면 처음 모양으로 돌아온다. 물론 장기 보관 시에는 말아 두지 않는 편이 좋다. 에디터 장민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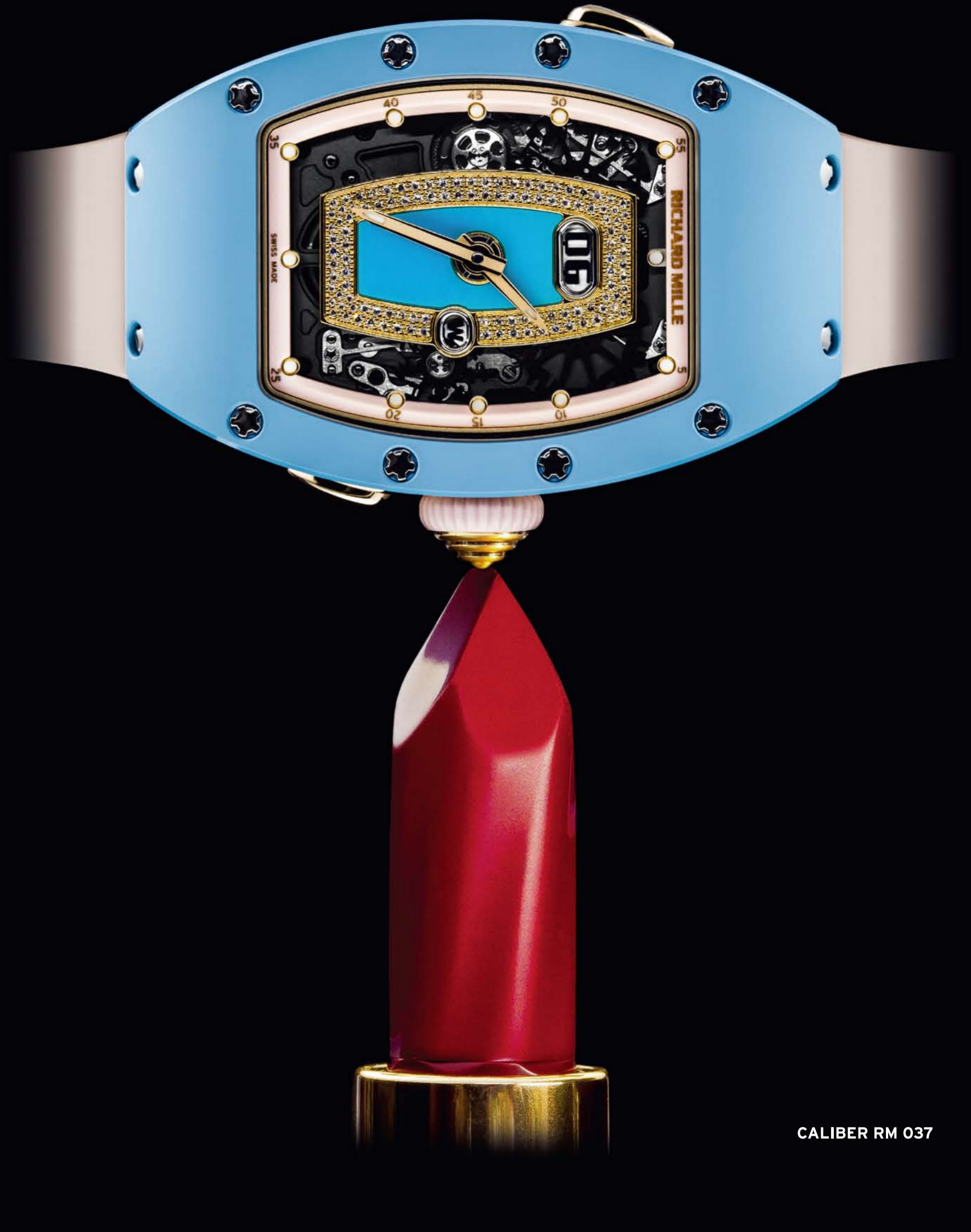
## Exhibition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한국의 정원展, 소재원 낯설게 산책하기)



공정 소재원 눈으로 보기

시각적인 호사와 함께 글로벌 맥락에서 동양적인 정체성을 고민해본게 하는 전사가 화제를 모았다. 우선 국내에도 열혈 팬이 다수 있는 대만계 미국 작가 제임스 진(James Jean)의 대규모 개인전이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 순수미술과 상업미술, 신화와 현실, 동서양, 과거와 현대 등 모든 경계를 넘나들면서 독창적인 시각언어를 구축해온 제임스 진을 가리켜 일본 스타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장차 예술계의 중심에 설 작가'라고 극찬한 바 있다고. 커리어 초반에 미국 민화 산언의 생두이치인 DC 코믹스의 컷버 작업을 꾸준히 하다가 2008년부터 자신만의 회화 작업을 하면서 순수 미술계에 발을 들인 그는 특유의 우아하고 신비로운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그 동화적인 감각을 예술성을 추구하기로 명성 높은 럭셔리 브랜드 프라다(Prada)의 프로젝트에서도 출중하게 발휘해 10년에 걸쳐 세 차례 협업했다. 작품에 동사양의 문화가 접목되지만 스스로를 아시아인도, 미국인도 아닌 '3자'라고 여기는 제임스 진의 이번 전시에는 코믹 북 커버, 드로잉, 대형 회화와 조각 등 무려 5백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9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는 한국 정원의 미학이라는 흔치 않은 주제를 다룬 전시가 5월 19일까지 열린다. 전남 담양의 소재원을 소재로 사원시원한 미디어 아트와 세계절을 배경으로 한 영상과 사진 등이 아우러진 <한국의 정원展, 소재원 낯설게 산책하기>. 미치 자연을 가늠는 듯한 시각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풍류와 은유, 여백 등 철학적 사유로 이끄는 기회도 선사한다. 에디터 고성연

#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for him  
**Selection**

짧은 여행을 더욱 근사하게 완성할 다채로운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죽인 버클로 만든 가방. 1백만 원대.  
**보스 맨.**

포멀 웨어와 캐주얼 룩에 두루 매치하기 좋은 에크루드 까르피에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까르피에.**

매트한 간치니 로고 장식 벨트 55만원 **살바토레 페라기오.**

타구 가죽과 러닝 소재를 혼용한 캐주얼 스니커즈. 1백만 원대. **에르메스.**

총출회 1만 여대를 장식할 클래식한 스니커즈 53만원 **살바토레 페라기오.**

배색 리본 디테일 파우더햇 46만원 **헬렌 카민스키.**

다채로운 패턴을 패치워크한 에스파드리유 가격 미정 **에르메스.**

라이닝으로 포인트를 준 니트 카디건 1백만 원대. **브루넬로 쿠치넬라.**

전면에 벨트와 지퍼 장식을 더한 보스 맨백. 51x35cm, 2백20만원대 **토즈.**

베네치아 카프 레더 카드 홀더. 11.5x8cm, 8만원 **베루티.**

블랙 러버 스트랩을 더한 마린 알람 뮤지컬 55467. 가격 미정 **브레게.**

보스 맨 02-515-4088 살바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까르피에 1566-7277 분다삼 02-2056-1234 몽블랑 1670-2551 토즈 02-3438-6008  
 베루티 02-547-1895 에르메스 02-511-2573 브레게 02-3479-1008  
 브루넬로 쿠치넬라 02-3448-2931 헬렌 카민스키 02-3433-650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스.티. 뉘통 파리 02-2106-3596 에르메스 02-542-6622



it starts with a dream





for her  
**Selection**

위켄드 셋어웨이를 위한 우아하고 페미닌한 스타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핸들을 악어가죽으로 처리한 웨빙 패브릭 백. 29x23cm, 3백29만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오버사이즈 프레임 투톤 선글라스. 가격 미정 에스카다 by 세원 I.T.C.

대형 모티브의 크리стал 장식 브로치(27만원) 스와이모브스키.

기하학적인 패턴과 스핑크 장식 보트 넥 니트. 3백30만원 브루넬로 무치넬라.

골드 메탈에 모노그램 캔버스를 덧댄 뱀글 각 58만원 모두 루이비통.

가죽 메들 대테일의 크림색 로퍼 가격 미정 톨즈.

리본 장식 스몰캡 햇. 79만원 파비나 필리피.

에스카다 컬렉션의 보헤미안 스타일. 핑거링은 옹기타레 지닌 68만원. 핑거링은 옹기타레 지닌 68만원.

반짝이는 스웨터의 구조적인 모양의 웨이스트라인을 통해 1백49만원의 실루엣에 재미가 있다.

아이보리의 컬러와 고급 레진 소재, 편광된 굽부분을 유도의 유즈 마블링 면으로 에디션 두 번째 시리즈 풀링 90만원의 흥분함.

이와 활동에 최적화된 코튼블루루트스. 222만원. 핑거링은 222만원.

오픈워크 처리한 원형 모티브와 흑진주 모티브가 손가락을 감싸는 링 가격 미정 골든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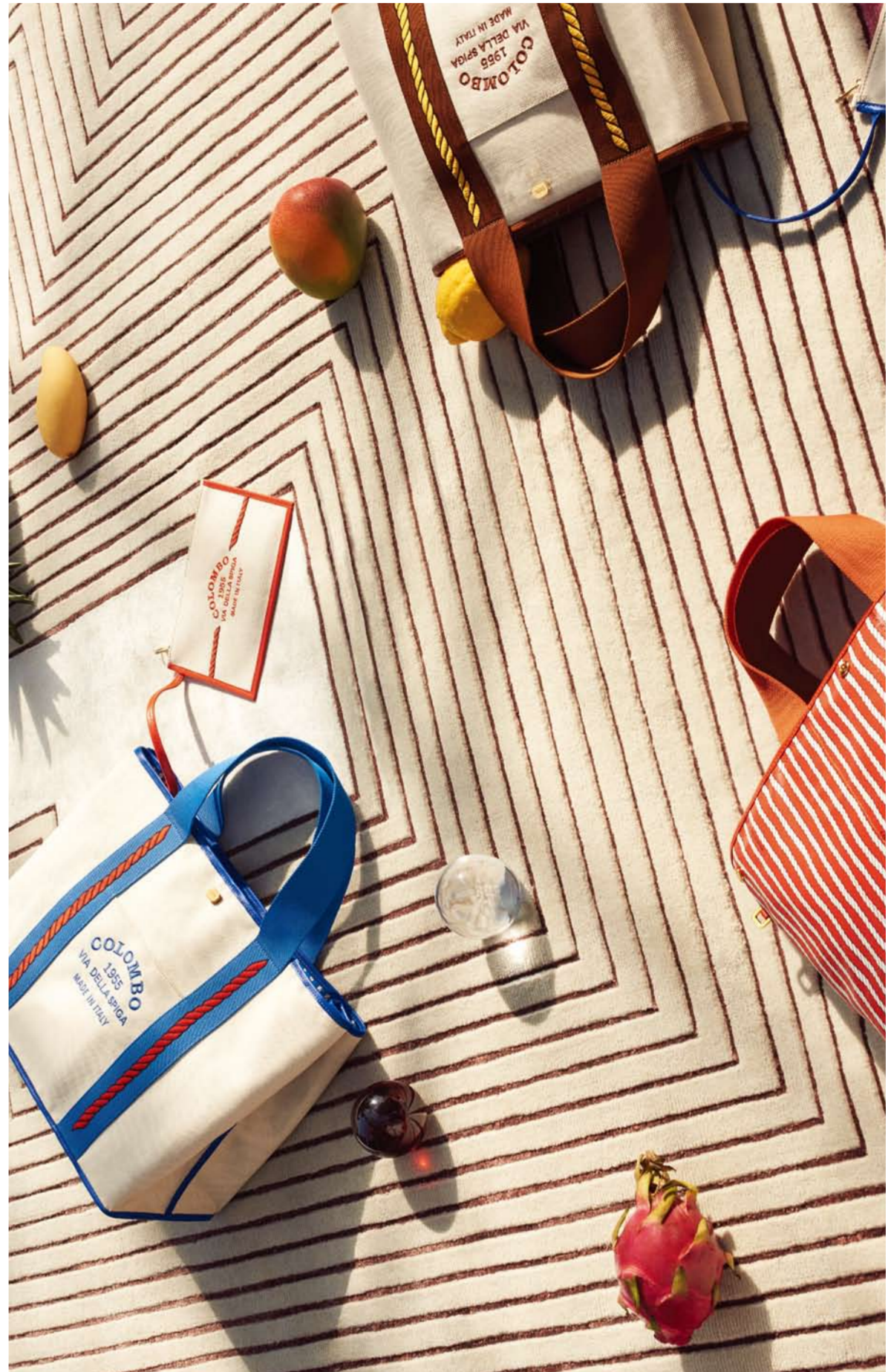
컬러풀한 코튼 네크리스. 37만원대 하트.

소중히 유대 관계라는 의미를 담은 로제 트레드 타이 리미티드 에디션 보틀 10만원대. 모엣 & 샹동.

ASERLIA의 유망한 아이스아트 이세팅, 샴페인 에너지 이터미.

-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2-2230-1225
- 살바토레 파라이시오 02-3430-7854
- 루이비통 02-3432-1854
- 스와이모브스키 1522-9065
- 파조 02-3438-6008
- 파비나 필리피 02-6905-3626
- 골든듀 1588-6576
- 에르메스 02-542-6622
- 방안올름순 02-518-1380
- 하트 031-781-8251
- 모엣 & 샹동 02-2188-5100
- 몽블랑 1670-2551
- 다들 02-3480-0104
- 세원 I.T.C 02-541-7086
- 브루넬로 무치넬라 02-3448-2931

조절 가능한 지퍼와 스트링 디테일로 활동성을 높인 롱 스킨 원피스 1백만원대 에르메스.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 Fuori Salone 2019

이탈리아의 수도 밀라노를 진정한 글로벌 창조 도시로 꽃피게 한 데는 패션보다 해마다 춘 삼월 무렵 찾아오는 '디자인 위크의 공이 훨씬 크다. 그들의 리그가 아니라 만인이 즐길 수 있는,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축제여서다. 올해 58회를 맞이한 주 전시회 '살로네 델 모빌레가 열린 지난 4월 디자인 주간(8~14일)에 감성과 감각을 자극한 장외 (Fuori Salone) 전시 하이라이트를 나름대로 추려냈다.

지난해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는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처음 등장했다. 알파고를 내세운 게임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Softwear'라는 재치 있는 제목의 전시를 꾸렸다. 기술을 라이프스타일에 잘 융합시킨 미래상을 보여주는 디자인 전시였다. 올해는 미학적 체험이 인간의 몸과 팔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A Space for Being)을 선보였다. 구글 전시가 열린 스파치오 마이오치(Spazio Maiocchi)에서 명품 캐리어 브랜드 리모와와 창작 스튜디오 칼레아도스코프는 스페인 아티스트 기예르모 산토마(Guillermo Santoma)와 손잡고 전시를 열었다. 온라인, 인쇄물, 라이브의 멀티플랫폼에서 전개된 프로젝트 가스(Gas), 그 자체로 강력한 브랜드인 '살로네의 워커'인 비로 이린 것이다. 그저 가구와 소품 등의 인테리어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산업을 둘러싼 기술과 아이디어, 트렌드를 폭넓게 꿰뚫어보고 체험도 가능한 창조적 플랫폼이기에 관람객은 열광한다(순환 경제, 로봇 시대의 인간, 디자이너가 만든 레스토랑 등 다학제적 교류를 하는 '디자인 생커'가 주제가 정말로 다채롭다). 주 전시장으로 피에라에 입성한 전문 가구 브랜드가 아니라도 구굴, 삼성, 소니, 현대차, 3M 같은 글로벌 기업, 그리고 내로라하는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이 장외 전시장에 앞다투어 흥미로운 창조물을 내놓는 이유다. 개성 있는 대형 설치물로 눈을 사로잡는 COS의 전시는 올해도 인기 만점이었다. 건축가 아서 마우-마니(Arthur Mamou-Mani)와 바이오 플라스틱 조각가로 유명한 매력적인 구조물로 발길을 이끌었다. 매력적인 자체와 화려한 위용을 논하지만 유서 깊은 팔라초 세르벨로니(Palazzo Serbelloni)에서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을 선보인 루이 비통을 빼놓을 수 없다. 캄파나 형제, 미르셀 반더 르스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으로 탄생하는 이 컬렉션은 공간의 미를 한껏 살린 무대에서 장외 전시장이 갖는 '아트 퍼니처의 존재감'을 뽐냈고, 이 중에는 새로 합류한 디자인 듀오 자샤리노/브레스토의 데뷔작 '만달라(Mandala)'를 비롯해 여러 디자이너의 신작 10점도 포함됐다. 또 다른 명품 패션 브랜드 펜디와 펜디 카시는 밀라노 시내의 자사 쇼룸에서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크리스티나 첼레스티노(Christina Celestino)와 함께 신상품을 위한 전시 공간 'Back Home'을 마련했다. 1970년대 로마 가정집을 연상시키는 공간에 소재와 색채의 흥미로운 조합이 절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새 컬렉션은 로 피에라 전시장에서 선보여 호평받았다. 아르마니는 최근 한국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Tadao Ando)의 회고전 (The Challenge)로 화제를 몰았다.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공들여 빛낸 미·일합 전시 공간인 아르마니/사일로서에서 열린 이 회고전과 거기에 맞춰 안도 다다오가 몸소 기획한 전시 공간에 참여해 왕성한 에너지와 특유의 솔직한 입담을 발휘했다. 밀라노 디자인 · 건축계의 '핵심씨로' 여겨지는 나나 야샤리노(Nina Yasseri)의 감각적인 날렵파 갤러리, 이 일계의 '여왕'으로 통하는 피트리시아 우르쿨로아(Patricia Urquiola)가 아트 디렉터로 활약 중인 카시나(Cassina)와 B&B 이탈리아 같은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들의 근한 쇼룸도 놓칠 수 없다. 카시나는 20세기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가 인도 신도시 계획 프로젝트 찬디카르를 위해 그린 드로잉으로 벽을 장식하는 등 쇼룸을 색다르게 꾸렸고, 프랑스의 여성 크리에이터 샤를로트 페리앙(Charlotte Perriand)의 가구를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는 등 풍부한 콘텐츠로 자랑했다. B&B 이탈리아는 쇼룸과 로 피에라 전시장 양쪽에 가이타노 페세(Gaetano Pesce)의 명작 업(Up) 소파의 50등을 자축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이 밖에 정주호 디자이너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시(수목의 독백)도 은근히 호감을 사기는 불리했다.



역사적으로 황금시대를 이뤘던 도시들의 공통점은 창조성과 혁신성이라고 했다. 도시·지역 계획 전문가 피터 홀은 "거대하고 활기차고 다국적이며, 외부인을 유인하는 매력을 지닌"이라는 긴 수식어를 동원했다. 흔히 살로네(Salone del Mobile)라고 부르는 국제가구박람회를 필두로 디자인 위크가 열리는 4월의 밀라노는 딱 그런 곳이다. 실제로는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1백3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디자인을 즐기는, 또는 '업'으로 하는 이들이 세상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듯한 아주 거대하고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그 현장을 일부나마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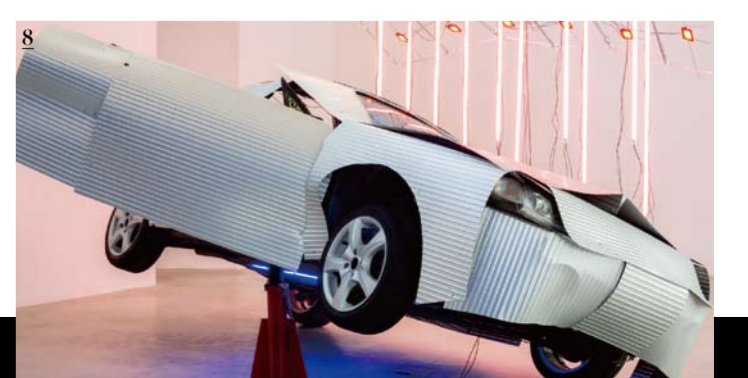
## Euroluce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가구박람회만 보면 무섭기도 하다. 주 전시장으로 피에라(Rho Fiera)에 모여드는 폭발적인 인파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기에 관광도 겸하면서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고, 공간 자체가 전시장 부스가 아니라 보다 개성을 담을 수 있는 장외 전시 푸외리 살로네(Fuori Salone)가 훨씬 더 인기가 높다. 하지만 올해는 주 전시장을 향한 때때로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다. 객관적으로 개회식은 조명 박람회인 '에우로루체(Euroluce)'가 찾아온 해여서다. 그로 말로 빛의 축제라 할 만큼 세계 각지의 조명 브랜드들이 실력을 뽐내는 에우로루체는 올해 30회째. 예술을 방불케 하는 설치 작품부터 일상의 공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병원 등의 산업용 조명까지 빛을 둘러싼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다. 대다수 관람객의 시선과 발길을 잡아끄는 건 역시 빛의 미학을 충실히 반영한 품목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지면을 '이미지'에 더 많이 할애했지만, 몇몇 브랜드는 꼭 짚고 가고자 한다. 우선 피렌체 기반의 테르자니(Terzani)는 하나하나가 작품이라 할 만큼 미학적 완성도가 뛰어난 브랜드로 각각의 작품이 설치된 방에서 체험하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뜨려 놓았다. 핸드메이드에 충실한 장외 전시장을 바탕으로 일류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하기에 브랜드 스스로도 'lighting sculpture'라는 표현을 쓴다. 유리공예와 조명을 아우르는 체코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역시 남다른 미학적 오라를 지닌 라스빗(LASVIT)은 이룸 자체가 빛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체코어로 'Love(Láska) and Light(SVIT)'의 합성어이고, 금빛 후광을 두른 라스빗의 부스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테크노 시인 아릭 레비(Arik Levy)의 상징적인 '록(rock)' 시리즈 요소가 들어간 새로운 팬던트 조명을 비롯해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감성을 지어내는 스페인의 조명 브랜드 이르투로 알바레즈(Anturo Álvarez)는 조명 상품도 그렇지만 예술적인 설치 작품으로 감탄사를 자아냈다. 그물처럼 편 매달, 나무, 패브릭 등의 소재로 길고 가느다란 인간의 얼굴 형상을 연출해 벽에 투영되도록 하는 한정판 시리즈 작품들은 그야말로 기술을 다스린 '예술품'이었다. 조명 마니아라면 익숙한 브랜드인 루이스 폴센(Louis Poulsen)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도 개인전을 열어 인지도가 높은 올라푸르 엘리아슨이 디자인한 한정판 팬던트 조명 'OE Quasi'. 기하학적 모양의 섬세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고혹적인 작가의 이룸값을 반영하듯 가격은 만만치 않다(하나에 1만2천여 원 정도). 장외 전시에서 인기를 끈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조명 브랜드 플로스(Flos). 독일 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라치(Konstantin Graic)와의 협업으로 시대의 흐름에 눈여겨보는 미장센과 규모로 설치 작품 'Noctambule'를 전시했다. 밤 부영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낮에는 공간에 스며들 듯 잘 보이지 않다가 밤의 어둠 속에서 황홀한 빛과 자태를 뽐내려는 뜻에서 붙였다고.



# 2019 밀라노 디자인 위크 리포트 iSaloni 2019

1 유리공예와 조명으로 명성 높은 체코 브랜드 라스빗(LASVIT)의 베스트셀러 'Never Ending Glory'의 새로운 버전. 2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명 브랜드 플로스(Flos)가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디자인 듀오 포르미탈타스마(Formaltasma)와 협업해 내놓은 조명 'WireLine'. 고무 소재의 줄이 (자로 드린 가운데 LED 램프가 달린 모양) 독특하다. 3 감성을 키워드로 내세운 스페인 조명 브랜드 이르투로 알바레즈(Anturo Álvarez)의 설치 작품. 4 루이스 폴센(Louis Poulsen)이 선보인 올라푸르 엘리아슨의 한정판 팬던트 조명 'OE Quasi'. 5 조명이라기보다 '작품'이라 불러야 할 듯한 예술적인 라인을 자랑하는 피렌체를 기반으로 한 테르자니(Terzani). 휘감아치는 듯한 유려한 곡선이 인상적인 'Epoque'. 6 갈롱하인셔도 우아함이 묻어 있는 비스타 알레그레(Vista Alegre)의 조명. 7 명품 도자 브랜드인 아드르(Ladri)가 네덜란드의 슈퍼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르스(Marcel Wanders)와 협업해 내놓은 조명 'Nightbloom' 시리즈. 8 밀라노 디자인 주간 '볼가' 중 하나인 크리스탈 팔라스' 전사로 명성 높은 스와로브스키의 조명으로 장식한 실내 공간. 9 캐나다 밴쿠버에서 성장한 참신한 브랜드 ANDIGH의 조명 미학을 보여주는 2019 컬렉션 중 하나인 'Orbi' 시리즈. 사진 제공 : 각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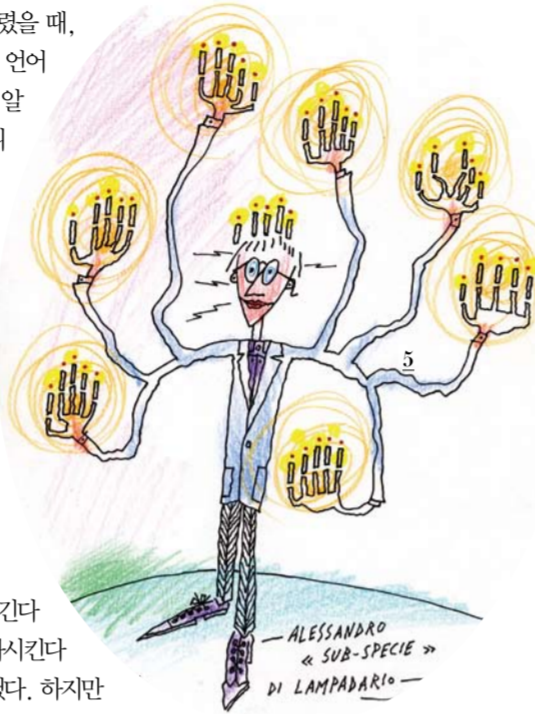


# Ciao Ciao, Mendini



80대 고령이기는 했지만 이탈리아 디자인·건축계의 '작은 거인'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1931~2019)의 타계는 예기치 않은 슬픈 소식이었다. 다소 급작스러웠던 서거였기에 그의 스튜디오 이탈리아에 멘디니가 있는 밀라노 현지에서도 이 거장의 눈부신 자취를 제대로 회고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터. 그래도 뽀족한 얼굴이 인상적인 그의 '베니 조각이' 등장한 포스터가 거리에서 골잡이 눈에 띄었고, 장외 전시장에는 '감사해요, 알레산드로(Grazie Alessandro)'라는 문구 아래 시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멘디니 특유의 일러스트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는 풍경도 마주칠 수 있었다. 또 네덜란드의 슈퍼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는 'Mendini Tribute Cinema'라는 한정 상영회가 올해 밀라노 디자인 주간에 열리도록 발벗고 나서는 부지런함을 보였다. 디자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도 꽤 인연이 깊었던 알레산드로 멘디니. 부단히 창조 혼을 불태웠던 고인의 삶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자금으로부터 4년 전, 서울에서 알레산드로 멘디니 개인전이 크게 열렸을 때, 전시 도록의 부제는 'The Poetry of Design'이었다. 멘디니의 디자인 언어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수식어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을 법한 베스트셀러로 두 팔 벌린 여성의 형상을 띤 앙증맞은 디자인의 와인 병뚜개 '안나 G'라든가 바로크 시대의 낡은 의자를 캔버스로 삼아 점묘 화가처럼 알록달록한 점을 찍어 새로운 가구로 거듭나게 해 모더니즘의 틀을 깨는 파괴적 혁신의 상징이 된 '프루스트 체어(Proust Chair)', 상상력을 절로 북돋는 활기 넘치는 디자인으로 포스트모던 건축물의 주요 작품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흐로닝어 미술관(Groninger Museum), 그리고 바닥에 닿는 받침대와 빛을 발하는 램프, 그리고 연결 고리, 이렇게 3개의 링(ring)이 '수호천사처럼' 조화를 이루는 조명 아물레토(Amuleto, 실제로 이탈리아어로 '수호물'이란 뜻을 지닌 이름이다)...



### 시인의 감성과 자성인의 각성을 겸비했던 크리에이터

그의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훑어보려면 단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옮긴다 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지긋하게 차오른 창조적 감성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혹자는 그를 가리켜 '감정 제조자'라고도 했다. 하지만 언뜻 천진난만에 보이기도 하는 멘디니의 디자인 감성은 그저 특 던져놓거나 토하는 식으로 표출되지 않고 사색하듯이 수심, 수백 번 스케치로 다듬어진다. 자신이 품은 사고와 감성의 정수가 담긴 언어를 수도 없이 정제하는 시인처럼 말이다. 실제로 그는 시인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펜대를 잡았던 이력이 있다. 이탈리아 디자인계 대표 주 폰티(Gio Ponti)가 창간한 건축 잡지 <도무스(Domus)>, 그리고 자신이 창간한 <모도(Modo)> 등의 편집장을 지내면서 15년 넘게 편집인 생활을 했다. 당시에 목적성을 강조한 기능주의와 소비주의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이 깃든 날카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채 모더니즘에 이유 있는 반기를 들었던 그가 '조형'에 대한 열망으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데뷔한 건 50대 중·후반이 되어서다. 물론 특유의 저항 정신이나 실험적인 기조는 미학적 계산은 반영되지만 정형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특유의 재기 발랄한 디자인으로 발현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활기찬 건 아니었다. 그에게는 동심 어린, 하지만 어딘가 애잔함도 느껴지는 시인, 혹은 소설가의 감성도 있었다. 글도, 조형도 넘치게 사랑했고, 아주 온 좋게도 재능까지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프루스트 의자'를 예로 들자면,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받은 시적인 영감의 소산이다. "프루스트 의자의 바로크 형태와 점묘법 패턴은 (소설처럼) 묘사적인 캐릭터를 부여해주지요. 강박적으로 이어지는 붓 터치에는 프루스트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처럼 끝이 없는 듯 보이잖아요." 그는 필자에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 히터이면 놓칠 뻔했던 행운, 멘디니를 두 도시에서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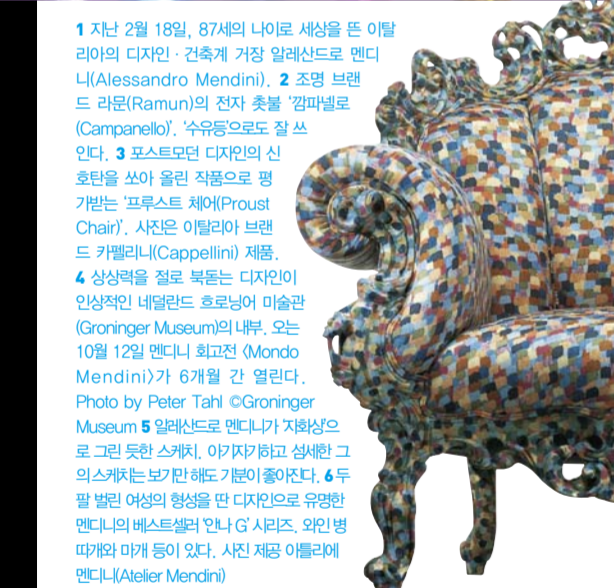
사실 언뜻 차분해 보이는 그의 인상 때문에 오해(?)를 한 적이 있다. 필자는 온 좋게도 멘디니를 서너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처음은 11년 전 밀라노에서였다. 당시 영국에서 런던의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던 중 비자 문제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아틀리에 멘디니를 찾게 됐다. 그에게는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니기도 했지만 워낙 작은 몸집에 성성한 백발,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만 접하고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활력도, 활동력도 떨어졌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장을 뵈고도 당장에는 인터뷰도 추진하지 않았다. 다(런던)으로 돌아가 뒤늦게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때는 컴퓨터 오류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알뜰하게 끝낸 운명은 아니었던지 세월이 흘러 또 다른 기회가 선물처럼 찾아왔다. 아물레토 조명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가 서울에 왔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게 됐다. 그의 고요하지만 치 차분한 인상은 그대로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뉘렁수에 뉘렁수를 맞은 듯 자성을 하게 됐다. 백발이 되어서도 여전히 창조적 열정과 뜨거운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어쩌자고 은퇴 '각인'노장 정도로 생각했던 말인가. 심지어 그는 필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3~4년 전쯤 밀라노의 스튜디오에 찾아오지 않았나"고 먼저 얘기를 건넸다. 사실 개인적으로 꽤 긴 인터뷰 여정을 꾸려왔지만, 미디어를 수없이 대하는 거장들이 일일이 저널리스트를 기억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는 않는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는 빼어난 지성과 감수성만 갖춘 게 아니라 유독 타인에 대한 관찰력, 삶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크리에이터였던 게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의 지인 말에 따르면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면 멘디니는 외려 아프기도 할 정도로 일에 대한 갈망과 열정도 끊이지 않았고 말이다. 상상력과 열정이 꿈틀거리는 그의 기분 좋아지는 스케치 파일을 보면 아직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남긴 채 아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창조 여정을 갈무리한 점이 못내 아쉽다(물론 충만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생을 살 수 있다면 단편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며 미소를 짓던 그의 모습이 가끔씩 그리울 것 같다. 글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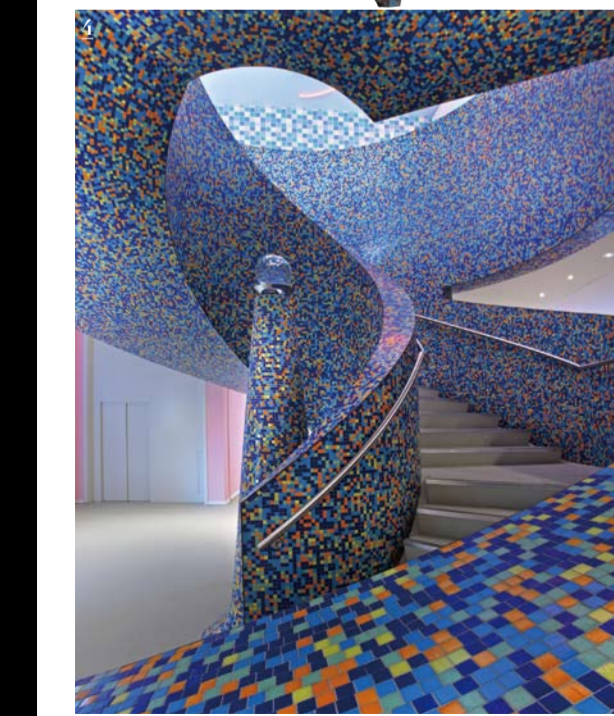
6



2



3



1 지난 2월 1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이탈리아의 디자인·건축계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2 조명 브랜드 드 라문(Ramun)의 천자 촛불 '캄파넬로(Campanello)', '수호천사'로 잘 알려져 있다. 3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작품으로 평가받는 '프루스트 체어(Proust Chair)', 사진은 이탈리아 브렌드 카펠리니(Cappellini) 제품. 4 상상력을 절로 북돋는 디자인이 인상적인 네덜란드 흐로닝어 미술관(Groninger Museum)의 내부. 오는 10월 12일 멘디니 회고전(Mondo Mendini)이 6개월 간 열린다. Photo by Peter Tahl © Groninger Museum 5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지휘함으로써 그린 듯한 스케치.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의 스케치는 보란 듯이 기쁨이 준다. 6 두 팔 벌린 여성의 형상을 띤 디자인으로 유명한 멘디니의 베스트셀러 '안나 G' 시리즈. 와인 병뚜개와 마개 등이 있다. 사진 재장 아물레토 멘디니(Atelier Mendini)



# SWAROVSKI

#FollowYourSun

Shop the new Mother's Day Collection



자연 모티브의 섬세한  
임브로이더리가 돋보이는  
드레스 1천2백10만원 판매.



대담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실크 드레스  
8백50만원 구매.

# Dress code

여자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여자만의 전유물, 드레스.  
올봄은 장식적인 아플리케,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프린트가 대세다.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레오나르도.



아리산 그래픽이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플라즈마 디테일의 실크 소재  
드레스 8백77만원 발렌티노.

가브리엘라 헤르티그

## Mercedes-Benz Man.

The star fragranc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Mercedes-Benz





(왼쪽부터) 솔더백 경음 토트백 가격 미정 **지형시**, 문의 02-2056-2223, 일라스트 코튼 스카프 2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실크 넥타이 12만9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문의 02-2052-8822, 에이드 컬러 애플리 스니커즈 1백16만원 **지형시**, 문의 02-2056-2223, 색감이 선명한 라버 코트 3백31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메탈 소재 레밍 스키를 다한 아나셀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200-2700

# the FASHION

선물의 계절 5월,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을 두루 헤아려 엄선한 패션 기프트 가이드, *photographed by lee yong i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드러운 가죽 토트 백 2백59만원 **살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2140-9666, 그래픽 시이드 테이플 54만7천원 **무토 by 짐볼랑**, 문의 070-7794-0830 실크 스카프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줄무늬 솔림은 가격 미정 **워렌드 막스미라**, 문의 02-3479-1246, 스나이크와 플라워 자수가 돋보이는 발렛 쿠션 1백74만원 **구찌**, 문의 02-3444-3169, 조형적 디자인의 웨지힐 1백34만원 **프루다**, 문의 02-3442-0939, 게다가 형태의 플랫슈즈 가격 미정 **살버토레 페라기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빈티지 스타일 주머니 백 3백90만원 **구찌**, 문의 02-3444-3169, 7겹과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카프 82만원 **브리오니**, 문의 02-3449-5396, 청량한 컬러의 그린 재킷 4백40만원 **구찌**, 투톤 배색의 에스피드리유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200-2700, 골드 버클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마린 백 4백61만5천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이버 양재 41만2천원 **무토 by 짐볼랑**, 문의 070-7794-0830, 브라운 가죽 솔더백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38-6207, 라틴 바스켓 백 2백75만원 **살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2140-9666, 블랙 밴드 스트로 햇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200-2700, 케일 컬러 워터힐 95만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선글라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제너**, 문의 02-518-0285, 브리크스 스타일의 그레이스 백 1백82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갈색 로퍼 1백50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래픽 패턴 바스켓 백 3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체크무늬 셔츠 1백80만원 **구찌**, 문의 02-3444-3169, 쿠션 커버 428천원 **주미네**, 문의 02-512-7888 코튼 플랩 50만원대 **에르메스**, 담백한 디자인의 클라치 가격 미정 **휴고 보스**, 문의 02-2210-5152, 스웨이드 샌들 61만5천원 **휴고 보스**, 체인 스트랩 스커터 백 1백35만원 **지형시**, 문의 02-2056-2223, 차분한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스니커즈 40만5천원 **휴고 보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케이프 재킷과 레이스 모자 모두 가격 미정 **셀리노**, 문의 02-549-6631, 칼 라가벨트가 그려진 클라치 1백13만원 **켈디**, 문의 02-514-0652 스트랩 플랫 샌들 1백26만원 **몽클레르**, 문의 02-514-0900, 라운드 플랫슈즈 트레이 102만4천원 **무토 by 짐볼랑**, 문의 070-7794-0830, 비딩 장식 펠프스 1백45만원 **켈디**, 빈티지 스타일 실크 스카프 32만원 **몽클레르**, 화이트 화형 미디엄 사이즈 9만6천원, 라지 사이즈 11만원 **판리빙 by 짐볼랑**, 문의 070-7794-0830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힌 클라치 2백83만원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갈라와 디자인이 다른 2개의 가방을 하나로 합한 듯한 솔더백 1천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스카이 블루 실크 넥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네이비 넥타이 42만원 **브리오니**, 문의 02-3449-5396, 니트 넥타이 8만5천원 **브룩스 브라더스**, 문의 02-2052-8822, 가죽 플러퍼 83만원 **살버토레 페라기오**, 문의 02-2140-9666, 도트 무늬 스카프 가격 미정 **휴고 보스**, 문의 02-2210-5152, 에니멜 벨글 1백만원대 **에르메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형미를 강조한 솔더백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515-5840,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스트라이프 재킷 1백46만원 **이자벨 마랑**, 문의 02-516-3737, 가죽 스니커즈 1백15만원 **에르메스** **제너**, 문의 02-518-0285, 볼륨감이 돋보이는 클라치 가격 미정 **워렌드 막스미라**, 문의 02-3479-1246, 진주 장식이 달린 레밍 스키 플랩 백과 진주 장식 발굽 모두 가격 미정 **사넬**, 문의 080-200-2700

(위부터) 사텔 화인 주얼리 코코 크래쉬 컬렉션 사텔본의 스타일러시한 골드 패턴이 돋보이는 화이트 골드 스몰 링 3백50만원, 18K 골드 31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이지 골드 스몰 링 5백50만원, 베이지 골드 브레이슬릿 8백80만원, 8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1천2백80만원, 문의 02-3442-0962



타사키 어반스퀘어 스타 네크리스 18K 옐로 골드에 이코아 진주를 장식해 밤하늘 가득 빛나는 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네크리스 9천1백40만원대, 타사키 벨런스 룩스 링 동근 이코아 진주기 기둥 위에 나란히 떠 있는 것처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링 9백80만원대, 문의 02-3461-5558

카멜레온 세트로 스타일러시한 5백만원

(위부터)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의 유려한 라인을 따라 세팅한 정스톤이 움직일 때마다 춤을 추듯 손목 주변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2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드보 클립 골드 비즈에 둘러싸여 빛을 발하는 자개와 오톨스 눈동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을 전하는 핑크 골드 브로치 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반타지 알함브라 네크리스 행운과 건강, 부를 상징하는 알함브라 모티브에 스톤로 초록빛 알라카이트를 세팅한 옐로 골드 네크리스 1천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왼쪽부터) 불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풍요, 절망, 지혜, 부활을 상징하는 뱀을 로즈 골드와 스틸 콤비네이션의 브레이슬릿으로 형상화한 루보가스 워치 1천5백만원대, 육각형 비늘 패턴과 에미시스트를 세팅한 강렬한 눈매가 돋보이는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네크리스 5백만원대, 로즈 골드에 자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퍼 링 5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 the JEWEL

기억하고 싶은 순간, 전하고 싶은 설렘,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주얼리 선물에 담긴 의미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위부터) 티파니 트루 링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광채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손가락과 기갑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플래티넘 링 가격 미정, 티파니 슐리스트 밴드 링 앞면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링 3백40만원, 티파니 T 트루 링 서로 맞물린 알파벳 T가 채인 형태로 교차해 강인한 균형미를 보여주는 18K 화이트 골드 링 1백86만원, 문의 02-547-9488



(위부터) 쇼베 조세핀 아그레트 컬렉션 타이머를 연상시키는 V자 형태의 디자인에 57개의 이코아 진주와 2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링 가격 미정, 피어 컷 에미시스트와 4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링 가격 미정, 조세핀 황후의 아이코닉 백로 깃털 아그레트 왕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2-3442-3359



(위부터) 까르띠에 클라쉬드 까르띠에 링 총총하게 세팅한 스티드와 스티드를 통과해 상하좌우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피코 장식이 유연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18K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링 1천만원대, 까르띠에 렌더드 까르띠에 워치 상세하게 다듬은 동근 모사리의 정사각형 다이얼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매치한 더블 브레이슬릿 워치 4천9백만원대, 까르띠에 클라쉬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기하학적이지만 우아하고, 보족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18K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 8백만원, 문의 1566-7277



부쉐론 액티브 클럽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오디오 케이블 직에서 영감을 얻은 그래픽적 모티브와 라운드 채인, 멀티웨이 옵션을 통해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매차할 수 있는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1천9백80만원, 부쉐론 쿼트로 화이트 다이아몬드 라지 링 옐로 - 화이트 - 핑크 골드와 부쉐론의 특별한 광택으로 제작한 화이트 하이 세라믹을 결합한 링 1천1백90만원, 문의 02-6905-3322

(왼쪽부터) 브리케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섬세한 체인 형태의  
 브레이슬릿과 자계 다이얼, 기존보다  
 작은 사이즈의 에그 셰이프 케이스로  
 우아함을 극대화한 '레인드 네이플'  
 미니 워치 7천원원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 독창적  
 디자인의 다이얼, 장인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이리브란  
 인테스가 돋보이는 레인드 네이플  
 오토매틱 워치 7천원원래,  
 문의 02-3438-6218



(왼쪽부터)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오パール 심버 다이얼을 보호하는 강력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와 무광 블랙 알루미늄  
 타카미터 링, 40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장중한 레이싱 코-엑스컬 크로노그래프 5백원원래, 블랙 다이얼을  
 보호하는 헤징라이터 크리스탈,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 30분 카운터와 12시간 카운터, 42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매치한 스피드마스터 문양치 프로그레스브 크로노그래프 6백원원래, 문의 02-2118-6212



(왼쪽부터) 피아제 포레스트  
 컬렉션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  
 11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인테스, 레드와 다크 블루, 두  
 가지 컬러를 제공하는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34mm 화이트 골드 케이스  
 워치 가격 미정, 1백3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2백33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이 시선을 압도하는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540-2297



(왼쪽부터) IWC 포르투피노 오토매틱 문레이즈 37 18K 레드 골드 케이스와  
 오토매틱 셀프와인딩,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문레이즈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블랙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워치 2천7백20만원, IWC 포르투피노 파페추얼  
 캘린더 날짜, 요일, 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79시간의 파워 리저브,  
 44.2mm 골드 케이스와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 백 케이스가 정교한 맛을  
 전하는 문레이즈 워치 4천8백70만원, 문의 02-3440-5683

# the WATCH

신중하게 선택해 선물한 시계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특별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해준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몽블랑 보렐 오토매틱 데이트  
 자계 다이얼, 기묘세 패턴, 블루 클로링  
 이리브란 인테스로 우아함을 더한 34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워치 6백40만원, 몽블랑 스타 레가시  
 문레이즈 29일 12시간 44분 3초를 주기로  
 초승달, 보름달, 반달, 상현달, 하현달로  
 바뀌는 달의 모습을 문레이즈를 통해 볼 수 있는  
 42mm 라운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워치  
 5백28만원, 문의 1670-4810



(왼쪽부터) 예거 로돌프 랑데부 문 이름다운 자계 디스크를 통해  
 보름달에서 반달, 초승달로 변화하는 신비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39mm 화이트 골드 케이스 워치 가격 미정, 예거 로돌프  
 랑데부 나잇 & 데이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을 떠올리게 하는 기묘세  
 패턴으로 장식한 숫자와 플로럴 핸즈,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베젤이 우아한 맛을 전하는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계정 예저브 컬렉션 세팅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



(위부터) 로저드워 엑스칼리버 워치 45mm 핑크 골드 & 티타늄 스퀘레트 케이스, 블랙 라버로 오버 몰딩된 티타늄 칸티에르, 티타늄 플루티드  
 베젤, 힐 너트 디자인의 티타늄 크라운, 우반사 차리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등 모든 디테일에서 강력하고 균형한 액자를 느낄 수 있는  
 오픈워크 다이얼 워치 8천5백만원, 로저드워 엑스칼리버 42 마이크로 로터 오토매틱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케이스와 다이얼로 정교함에  
 화려함을 더한 42mm 라운드 핑크 골드 케이스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3479-1403



(위부터) 블랑팡 빌라레 스퀘레트 8 데이 수 시간 동안 채우고 깎아내는 것을 반복해 극도로  
 슬림해진 무브먼트와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작업한 인그레이빙 등 최고 기술력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핸드와인딩 칼리버 1333SQ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블랑팡 빌라레 스노우셋 인버티드 무브먼트 미치 보이 내린 듯 무브먼트까지 총총히  
 세팅한 8백15개의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는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워치  
 가격 미정, 문의 02-3467-8426





**Like a Makeup Artist**

(유부터) 시슬리 **휘프 루즈** 강력한 보습력의 8인드라이프 컴팩트 3.4g 5만8천원, 문의 080-549-0216 데코르테 **크림 블러쉬** 광채 메이크업 블러셔 6g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나스 **에프터글로우** 탈탈 미우라김이 글로시한 립밤 3g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 시슬리 **로키 데 코랄** 인체적인 얼굴을 연출해주는 블러셔 팩트 15g 11만원, 시슬리 **휘프 용브르** 에글라 세안크림 부드러운 아이세도 1.5g 4만9천원, **자황시 뷰티 안크레** 영타지트 틴트 칠간의 립 컬러 7.5ml 4만8천원, 문의 080-801-9800 데코르테 **아이글로우 켈** 같이 있는 눈매를 연출하는 아이세도 6g 3만2천원, **데코르테 크림 블러쉬** 생기 메이크업을 연출해주는 블러셔 6g 4만2천원.

the **BEAUTY**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올 때, 화장품만큼 예쁘고 실용적인 선물도 또 있을까?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Anti-aging Skincare**

(유부터) **실크 페이스리프트 2.0** 고수퍼 옥사이드 LED 레드 라이트, 프락셔널 열에-자가 피부 탄력을 개선해주는부터 디어이 55만원, 문의 080-246-1234 시슬리 **시슬리아 탭데그** 탭 탭 아이주 주름, 탄력,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크림 50ml 50만원, 문의 080-549-0216 **시벨 르 프래쉬 로션** 상쾌한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보디 모이스처라이저 100ml 6만4천원, 문의 080-332-2700 **조르지오 아르마니 크레마 네라** 아쿠아 판타지아, 트리트먼트 로션 건조함과 주름을 개선하는 안티에이징 워터 에센스 150ml 19만8천원, 문의 02-3497-9406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터** 인텐시브 크림 건강한 광채와 탄력을 선사하는 리샤리 크림 45g 1만5820원, 문의 080-568-3111



**Sensual Perfumes**

(유부터) **메르세데스-벤츠 맨 그레이** 베르가모트, 핑크 페퍼, 애플우드, 마스크 향을 조합한 우디 프레스시 계열의 남성 향수, 50ml 6만8천원, 문의 02-3443-1805 **프라다 칸디 나이트** 비터 오렌지, 아미리스, 네롤리, 마스크, 코코아 바닐라 향이 아우러진 여성 향수, 50ml 13만4천원, 문의 02-3443-1805 **볼리 1803** **오 트라블** 아생 이끼, 갈바눔 에센스, 제라늄 에센스를 조합해 이국적인 향을 선사하는 우디 베이스 향수 75ml 20만5천원, 문의 02-515-0824 **샤넬 블루 드 샤넬** 베르겐 애플, 샌들우드, 마스크 아코드가 깊고 풍부한 우디 시트러스 향을 전하는 남성 향수 50ml 13만원, 문의 080-332-2700



**for Base Makeup**

(유부터) 시슬리 **블러 엑스퍼트** 강력한 커버력을 갖춘 HD 섀피 광택 파우더 13g 10만원, 문의 080-549-0216 **랑콤 UV 엑스퍼트** 톤업 밀크 로지 블룸 피부 톤을 생기 있게 보정해주는 자외선 차단제 50ml 8만원, 문의 080-022-3332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파운데이션 SPF 25/PA++** 가볍고 매끄럽게 스며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30ml 8만4천원, 문의 02-3497-9406

fun & Cool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선물로 소중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몽클레르가 제안하는 다채로운 액세서리 컬렉션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유부터 시계 방향) 감각한 메탈 프레임과 핑크 컬러 렌즈가 멋스러운 여성용 선글라스, 템플 끝에 특수한 라버 재질을 달아 착용감이 편안하다 52만원, 동근 알코와 입체형으로 제작한 라버 숄, 측면의 카탄 원형 로고, 장수작인 스티치 등 매력적인 요소가 눈에 띄는 여성용 캔버스 스니커즈 61만원, 핑크 화이트 대담한 레더링 프린트와 톤보이는 나일론 피우치 52만원, 블랙 아세이트의 메탈이 조화를 이루는 템플 측면에 고유 로고 장식을 더해 모던한 남성용 선글라스 54만원, 세 가지 컬러 스트라이프와 레더링으로 재미를 준 남성용 카드 스킨스 나카즈 70만원 모두 몽클레르. **에디터 이예미**



• sponsored by MONCLER

# Couple Chic

샤프한 서머 드레스,  
레트로풍 트렌디 수트,  
댄디한 재킷과 셔츠...  
초여름 카테일파티에  
잘 어울리는 프리서머 커플 룩.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여자) 블랙 레더 드레스,  
네이비 새틴 드레스, 블루  
클러치, 빈지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다.** 깃털 장식 슬링  
백 1백43만원 **로저 비비에.**  
(남자) 베이지 울 재킷, 팬츠,  
화이트 셔츠, 블랙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다.**



베이지 GG 로고 재킷  
4백10만원, 블루 셔츠  
1백20만원, 버건디 GG 로고  
팬츠 1백39만원, 샬버 크리스탈  
이아링 82만원 모두 **구찌.**  
레드 토트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트윈드 재킷, 스카트,  
메탈과 램스킨 소재 네크리스,  
램스킨 소재 플랩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화이트 사이하이  
부츠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츠먼**.



(남자) 화이트 패턴 재킷과 팬츠  
가격 미정 **엘프리오 아르마니**, 패턴  
셔츠 가격 미정 **조르지오 아르마니**,  
화이트 샌들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여자) 블랙 드레스 **5백66만원** **켄디**,  
깃털 장식 슬링 백 **1백43만원**,  
슬러 미니 백 **4백9만원** **로저 비비에**,  
크리스탈 네크리스 **1백10만원**  
**아들리에 스와로브스키**.



(남자) 브라운 FF 로고 재킷  
2백15만원, 팬츠 99만원,  
블랙 셔츠 69만원 모두 **판다**.  
블랙 로퍼 86만원 **프라다**.  
(여자) 블랙 레디 드레스 3백14만원,  
베이지 니트 톱 1백51만원,  
화이트 셔츠 1백22만원, 브라운  
헤어밴드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레드 힐 93만원 **로저 비비에**.



카키 컬러 재킷 3백95만원,  
크롭트 톱 가격 미정, 베이지 스커트  
2백19만원, 그레이 레깅스  
가격 미정, 옐로 샌들 1백29만원,  
옐로 미니 백 1백35만원 모두  
**살바토레 파라카모**, 진주 장식 골드  
아아링 18만원 **타니 마네타니**.





그레이 체크 점프 수트, 원 솔더 보디 수트, 리본 장식 힐 모두 가격 미정  
 만스마라, 실크 소재 핑크 솔더 스트랩 백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아워링 72만원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남자) TB 로고 절개 디테일의 니트 롱 1백68만원, 패딩 플루 컬러 체크 셔츠 51만원, 체크 타이 28만원, 블랙 팬츠 91만원 모두 바버리.  
 (여자) 블랙 드레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랙 스트랩 힐 1백15만원 프라다.

헤어 이일중  
 메이크업 안성희  
 모델 강소영, 타쿠야  
 어시스턴트 김은민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 보타가 베헤타 02-3438-7682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만스마라 02-3467-8326
- 구찌 1577-1921
- 에르메스 02-542-6622
- 샤넬 080-200-2700
- 스튜디오 와이즈민 02-3479-1528
- 엠포리오 아르마니 02-540-1115
- 렌디 02-2056-9023
-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1522-9065
- 바버리 080-700-8800
- 프라다 02-3442-1830
- 실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 미네테리니 02-3443-4164
-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 perfect Harmony

완벽한 기능과 미적인 형태의 결합. 이는 모든 면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IWC 샤프하우젠의 장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IWC는 가장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컬렉션 중 하나인 파일럿 컬렉션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 꿈꿨을 듯한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 그 바람을 담은 IWC 파일럿 워치의 시작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WC 오너 언스트 야곱 홀버거의 두 아들이 최초로 파일럿 워치를 개발했는데, 이 둘은 모두 열정적인 파일럿이기에 조종석을 위한 시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IWC 파일럿 워치의 제작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이는 덥고 습한 기후와 바다의 염분, 조종석에서 형성되는 강력한 자기장 등이 시계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IWC는 이러한 악조건에도 뛰어난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쌓았고, 이를 인정받아 군에 시계를 납품하기도 했다. 80년 이상 이어져온 IWC의 파일럿 워치 컬렉션은 비행에 대한 소망을 손목 위에서 구현 가능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완벽한 엔지니어링, 스핏파이어

블루의 명작으로 꼽히는 영국 항공기 스핏파이어의 타원형 날개는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로 정교한 기술적 개발품이자 아이코닉한 디자인 DNA가 되었다. 이러한 기능과 형태의 완벽한 결합에 주목해 탄생한 IWC의 스핏파이어 컬렉션. 새로 선보이는 모델은 모두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조종사들이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에도 시간을 잘 볼 수 있도록 적용한 형광 물질, 살짝만 봐도 핸즈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간 관독을 가능하게 한 12시 방향 삼각형 인덱스,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해주는 내부 연철 케이스, 그리고 6Bar 수압 저항 기능 등이 그것이다. 먼저 2100년까지 어떤 조정도 필요 없는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담은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스핏파이어(Ref. IW503601)'는 브론즈 케이스에 올리브 그린 다이얼,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해 빈티지 감성을 자극한다. 12시 방향의 더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 양옆에는 남반구와 북반구를 알려주는 표식이 스핏파이어 모양으로 위치해 디자인적인 개성도 놓치지 않았다. 시계를 움직이는 IWC 자체 제작 칼리버 52615는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



1 가죽 스트랩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빅 파일럿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스핏파이어. 2100년까지 어떤 조정 없이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빈티지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스핏파이어 문양을 기념해 올여름부터 30여 개국 일주를 시작할 영국 항공기 스핏파이어. 3, 4 파일럿 워치 타임존 스핏파이어 더 롱가스트 플라이트 에디션의 뒷면에는 스핏파이어를 새겼다. 스핏파이어 항공기를 조종하는 2명의 파일럿이 적용할 예정이다.

하며 펠라톤 와인딩 헤비 듀티 부품은 내마모성 세라믹으로 마무리했다. 파일럿 워치 타임존 스핏파이어 더 롱가스트 플라이트 에디션(Ref. IW395501)은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 로듐 도금 핸즈, 그리고 그린 텍스타일 스트랩을 매치했다. 론칭을 기념하며 올여름부터 2명의 영국인 파일럿이 1943년 제작한 스핏파이어를 복원한 항공기를 타고 약 4만3,000km를 비행하는 세계 일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들의 손목에 채울 예정. 베젤을 회전시키기만 하면 다른 시간대로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으며 24시간 디스플레이 및 날짜가 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IWC 자체 제작 칼리버 82760이 동력을 제공하며 내마모성 세라믹 부품으로 구성된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통해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두 모델 다 2백50피스 한정 제작한다.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장리운

● sponsored by IWC SCHAFFHAUSEN

# Shine on you

평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기회가 많은 5월, 스와로브스키는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2개의 선물 리스트를 제안한다.

## 아무르 레오파드 컬렉션

기본 좋은 빈티지함과 정교한 모티브로 홈 인테리어에 생동감을 더하는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작품은 누구에게나 인기. 표범의 매력 을 크리스탈로 표현한 아무르 레오파드 컬렉션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 러시아와 중국 동부 아무르강 유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인 아무르 표범의 힘과 강인함, 새끼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영감을 받은 아무르 레오파드 스피어는 정교하게 담아낸 5백70개의 파스와 스페셜 더블 코팅으로 표범의 우아한 무늬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리 스어로 지혜를 뜻하는 스피아(Sofia)와 스와로브스키 로고, 디자이너 니하르트 타베르트스페(Heinz Tabertshofer)의 이니셜과 출시 연도인 2019를 레이저로 새겨 소장 가치를 높였다. 새끼 아무르 표범의 매력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아무르 레오파드 커브스'는 9백63개의 파스가 아름다운 광채를 선사하며 스페셜 코팅을 적용해 표범 무늬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2019년 리미티드 제품으로, 아무르 레오파드 스피어와 함께 디스플레이하면 정겹고 사랑스러운 아무르 표범 가족의 모습이 완성된다.

## 크리스탈린 글램 워치

손목 위 크리스탈은 움직일 때마다 다른 빛으로 반짝여 더욱 매력적이다. 마치 불드한 뱅글 같기도 해 알고 가는 체인 브레이슬릿 여러 개와 매치하면 트렌디하게까지 하다. 8백 개 이상의 클리어 크리스탈이 토프 색웨이 다이얼과 대비되어 모던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크리스탈린 글램 워치'는 로즈 골드 컬러 스틸 케이스와 로마숫자 인덱스를 더해 스와로브스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천연 레더 스트랩은 어떤 계절,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는 토프 컬러로, 자연스러운 멋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다. 에디터 장리운



1 멸종 위기종인 아무르 표범을 크리스탈로 표현한 '아무르 레오파드 스피어'. 정교하게 여러 각도로 크리스탈을 깎아 만들어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빛이 반사된다. 2 새끼 아무르 표범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아무르 레오파드 커브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3 포인트 아이 핼름으로 좋은 '크리스탈린 글램 워치'는 얇은 체인 브레이슬릿과 함께 레이어드하면 더욱 멋스럽다.



● sponsored by SWAROVSKI

# eternal Brilliance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보석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파인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Golden dew)'가 보다 새롭고 영롱한 빛을 입은 다이아몬드의 세계로 모두를 초대했다.

지난 3월 28일 골든듀가 브랜드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며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다이아몬드 무역의 중심지이자 다이아몬드의 도시라 불리는 벨기에 안트워프와의 깊은 인연을 기념하며 벨기에 안트워프 월드 다이아몬드 센터(AWDC)와 협력해 개발한 아주 특별한 다이아몬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대규모로 진행된 행사에는 27만 만에 한국을 방문한 벨기에 국왕 내외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안트워프에서 온 숙련된 장인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모습을 시연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행사를 통해 소개한 '골든듀 x 안트워프 스페셜 다이아몬드'는 크게 세 가지다. 그중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성한 골든듀 컷 다이아몬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로, 기존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의 단점을 보완해 광채를 극대화했다. 육안으로 비교해도 다이아몬드 형태가 기존에

비해 훨씬 날렵해졌고, 빛을 발산하는 정도도 확연하게 차이 난다. 골든듀는 이 고유한 컷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엠플루트 골드 듀리'라는 아름다운 펜던트 네크리스를 선보인다. 브랜드가 걸

어온 시간을 상징하는 3개의 이슬방울 모티브가 1캐럿 또는 0.5캐럿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1캐럿 모델은 각각의 모티브 모두 360도 회전하며 그중 핑크 골드 소재의 모티브는 양면에 각각 루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착용하는 면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밖에 0.2캐럿 미만의 벨레 다이아몬드를 49면으로만 커팅해 기존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대비 스톤이 훨씬 크고 밝아 보이도록 고안한 울트라 브라이트 컷 다이아몬드, 모든 면의 컷 비율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연마해 최적의 광채를 띠는 에이스타 다이아몬드까지, 모두 골든듀의 기술력과 미학, 안트워프의 전통과 장인 정신이 어우러져 탄생한 독보적인 결과물이다. 한편 골든듀는 올해 팝업 스토어와 VIP 클래스 행사 등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전해나갈 계획. 골든듀 창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한 전국 매장, 골든듀 홈페이지(www.goldendew.com)를 통해 언제나 이들이 선사하는 눈부신 주얼리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88-6576 **에디터 이혜미**

1 골든듀와 벨기에 안트워프 월드 다이아몬드 센터가 함께 개발한 눈부신 광채의 골든듀 컷 다이아몬드. 2, 3, 5 오직 골든듀에서만 선보이는 골든듀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엠플루트 골드 듀리 펜던트 네크리스. 4 골든듀 x 안트워프 스페셜 다이아몬드 행사에 참석한 벨기에 국왕 내외. 6 레이스처럼 이진 울트라 브라이트 컷 다이아몬드 사이로 푸른색 탄자나이트를 세팅해 눈부신 빛을 내는 몬테루 네크리스. 눈 앞인 하얀 선과 푸른 하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7 울트라 브라이트 컷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하얀 실선 속에 빈아름다운 꽃송이를 묘사한 몬테루 앙코르 이어링.



# editor's Pick

사랑과 감사의 말이 넘치는 5월을 맞아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뷰티 신제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비 브라운 크러쉬드 리퀴드 립 더블 크러쉬 에디션 #85 다샤 뷰티 크리에이터 다샤 캉과 협업해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 틴트와 립 글로스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상큼한 베라에서 영감을 얻은 비버드함 컬러가 봄에 잘 어울린다. 애플리케이션 역시 날렵하고 도톰한 면을 모두 갖춰 사용하기 편리할 듯. 6ml 3214천원. 문의 02-3440-2781. *by 에디터 이혜미*

**상향하이 루이메르 로즈** 조선시대 궁중 여인들이 쓰던 귀한 분백토 같은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고 동그란 케이스 안에는 드 고바의 디자인을 양각한 피우더를 담고, 밖에는 이상적인 정원을 묘사한 시뉴이즈의 스테일의 그림을 그려 넣은 리미티드 에디션. 성서하게 반짝이는 베일 핑크 톤 피우더의 부드러운 광채와 가벼운 텍스처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4.5g 10129천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장라운*

**아트스튜디오 리미티드 킷 #루비로 라일락** 귀여운 일러스트가 시선을 끄는 튜브 형태의 립 크림. 실제 텍스처는 크림과 립글로스의 중간 정도로 발색은 무겁지 않고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이다. 크림을 매끄럽게 펴 바를 수 있는 부드러운 스킨지 립을 내장했다. 7ml 2212천원. 문의 1588-0080. *by 에디터 이혜미*

**고밀리 비스퀴트 블러머쉬 킷**을 인위적인 환경기가 되면 슬금슬금 하나둘 울러오는 뽀루지제 적합한 제품. 아침저녁으로 세럼 단계에서 발라주는데, 브랜드 특유의 복합적 성분이 트라블을 집중 케어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모공까지 정화해 준다. 끈적끈적한 텍스처도 마음에 든다. 30ml 5212천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장라운*

**생카올 클리어 아이 엠 립 리무버** 클렌징 폼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생카에서 새로 출시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워터풀과 오일풀, 2종 구조로 실효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진한 화장과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지워내는 강력한 세정력을 갖춘 것에 반해 눈과 피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 150ml 1만1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겔라 에디토리얼 버블 블러셔 #피치** 스킨케어부터 디자인이 어릴 적 좋아하던 사탕을 연상시키는, 기본 좋은 하이퍼티터 전용 블러셔. 멀티유즈 뷰티 제품이 주목 받는 요즘 트렌드에 적합하다. 덧발라도 밀라거나 풍치지 않는 워터 베이스 포뮬러로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 광채를 섞어 비르던 자연스러운 광채가 나는 초크 연출이 가능하다. 4g 5215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장라운*

**구피 블룸 내트리 디 피오리**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만든 첫 향수. 구피 블룸 시리즈의 세 번째 에디션. 꽃이 가득한 정원을 향으로 표현한 인클루시브하고 나뭇잎이 느껴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짝 피었을 때의 꽃을 담아 감동한 내트리 디 피오리는 로즈, 오스만투스, 재스민, 랑군 크리피, 루베로즈 등의 향이 강하게 섞여 관능적까지 하다. 100ml 2021천원, 50ml 1421천원. 문의 080-850-070. *by 에디터 장라운*

**데코르테 2019 서머 메이크업 컬렉션 크림 블러셔 #BE351** 손가락이 푹 들어갈 만큼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블러셔. 오프라블이 실감 감도는 서머 베이지 컬러로 미세한 글러시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활력을 연출해준다. 발색이 과하지 않아 태닝 스킨으로 물론 하얀 피부에도 잘 어울린다. 6g 4212천원. 문의 02-3466-3600. *by 에디터 이혜미*

**산타 마리아 노벨라 캔들 오브 더 아이원** 아침, 정오, 저녁, 밤 등 하루의 시간을 향으로 표현한 김 캔들 컬렉션. 그중 밤을 표현한 퍼플 컬러 노벨라 이온리컬 향의 숙면을 위한 캔들로 로즈와 바닐라 향이 느껴진다. 그늘과 타일 현상을 방지하는 캔들 토퍼를 상자에 부착했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200g 1212천원. 문의 02-6979-0587. *by 에디터 장라운*

**세로주루덴 레 조 드 몰라베스** 아쟁에서 자라는 쑥의 일종인 이터메티사를 비롯해 머그우드, 베르가모트, 드라이 플라워 등 다양한 식물 향을 담았다. 인공적 이거나 과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가볍고 은은한 편. 이점의 말간 민낯처럼 간결하고 순수한 향을 유도했다는 설명이 잘 와 닿는다. 100ml 1921천원. 문의 02-3479-1926. *by 에디터 이혜미*

**조르조 아로마니 파우더 페인팅 파우더 컨실러** 생카르네 힐신 개념과 촉촉한 텍스처에 놀랐고, 이점만큼 뛰어난 커버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 때문에 피부 위에 퍼버리기 쉽고, 풍치거나 들뜨는 현상 없이 기쁘고 싶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역시 끝은 사선형, 몸통은 유선형으로 얼굴 골격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다. 6ml 4212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혜미*

**SK-II 피우러 에센스 스프링 레드 리미티드 에디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민골 피우러를 함께 기부하는 효도 생분을 함유한 워터 에센스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을 터, 5월을 맞아 특별한 패키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꽃가루가 흩날리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그레피티 패턴을 프린트해 선물로 제과이다. 230ml 2321천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이혜미*

**샤넬 레 베뉴 워터 프레스티지 틴트 # 미디엄** 스킨케어에 사용하는 기술을 메이크업에 사용해 75%의 수분과 질리 버블로 만든 틴트. 말 그대로 공기처럼 가볍고 물처럼 촉촉하다. 피부에 닿는 순간 질리처럼 탭 탭한 텍스처가 상쾌하고 실효한 느낌을 줘 지금부터 여름까지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브러시가 내장되어 있다. 30ml 9215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장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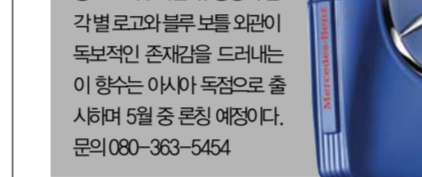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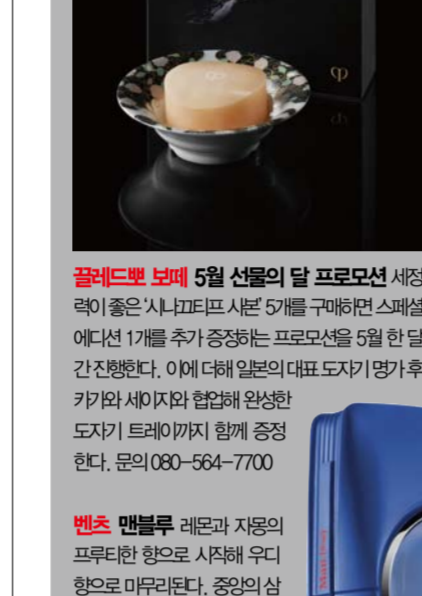
# SHOWROOM

FASHION



**몽클레르 6 몽클레르 느와케이 나노미야**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몽클레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제시하는 창조적 프로젝트 '몽클레르 자나이스' 몽클레르와 느와케이 나노미야가 협업해 기하학적 관념과 모더니즘, 반복의 개념을 체인, 꽃잎, 초음파 로고 등의 요소로 풀어냈다. 수직선을 통해 이뤄진 컬렉션은 전부 블랙 컬러로 통일해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문의 02-514-0900

**자방시 미스티 핸드백** 아티스틱 디렉터 클레어 웨이트 컬라미의 오토 쿠투르 실루엣에서 영감을 디자인한 제품. 골드 색상의 디들 G 짐공정자와 이블을 뒀고 있는 일파



BEAUTY

골드보 보떼

**골드보 보떼 5월 선물의 달 프로모션** 세정력이 좋은 '시.코트프 시본' 57ml를 구매하면 스페셜 에디션 17개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5월 한 달 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일본의 대표 도자기 명가 후카와 세이자와 협업해 완성한 도자기 트레이까지 함께 증정한다. 문의 080-564-7700

**벤츠 맨블루** 레몬과 자몽의 푸르디한 향으로 시작해 우디 향으로 마무리된다. 중앙의 삼각별 로고와 블루 보름 오반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향수는 아시아 독점으로 출시하며 5월 중 론칭 예정이다. 문의 080-363-5454

브루넬로 쿠차렐리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콜롬비아 엘라 스피카

보테가 베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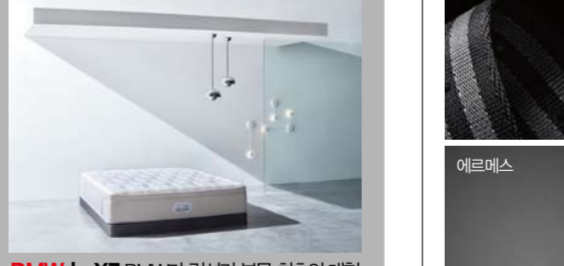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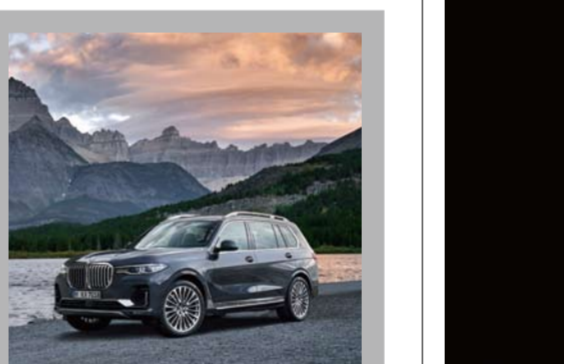
## JEWEL&WATCH



**불가리 세르펜티 세투토리** 뱀 머리를 연상시키는 지름 33mm의 삼각형 골드 케이스와 뱀 비늘 모티프 링크가 연결된 브레이슬릿의 조합이 대담하고 우아하다. 문의 02-2056-0172



**몽블랑 스타 레거시 오토매틱 데이트** 19~20세기에 만든 포켓 워치에서 영감을 얻었고, 클래식하고 상징적인 디자인 코드를 적용했다. 오토매틱 칼리버 MB 24.01로 구동하며 6시 방향의 창을 통해 날짜를 읽을 수 있다. 케이스 지름 39mm, 42mm, 27가지 모델로 출시한다. 문의 1670-4810



**BMW 뉴 X7** BMW가 100년 만에 선보인 대형 SAV인 뉴 X7을 공개한다. BMW 라인업 중 가장 넓은 실내 공간과 큰 차체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국내에서는 6인 탑승 가능한 37인치 라인업을 소개하는데, 그중 X7 xDrive30d 디자인 패키지는 액셀러레이팅을 7.0초로 단축할 수 있다. 문의 080-269-2200

**시몬스 패밀리 워드 프로모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테슬라 상급 매트리스를 포함해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스페셜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2-1899-8182



**반클리프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기존 알함브라 컬렉션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57치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 케이스에 머더오브펠, 오피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다이얼을 더했고, 교체 가능한 악어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제공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0798-852-16123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아버 300M** 워터 패튼을 인그리피한 블랙 세라믹 다이얼이 멋스러운 올 블랙 다이아버 워치. 뛰어난 정확성과 항자성을 검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6으로 구동한다. 300m까지 방수 가능하며 화이트 에나멜 다이빙 스케일을 새긴 세라믹 링을 더했다. 문의 02-511-5797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츄얼 오토-마스터 42**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낸 크로노지 이스케이프를 장착한 칼리버 3235로 구동하는 모델로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매트 블랙 세라믹 소재 양방향 베젤



**에르메스 아소 로브 뒤 수아** 2천2백 개의 작은 사각형 가죽 조각을 모아 크래프트를 이어 붙여 알의 옆모습을 형상화한 예술적인 다이얼이 아름답다. 다이얼과 송아지 가죽 스트랩까지 청명한 블루 컬러로 통일해 더욱 돋보이는 이 시계는 12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여 소장 가치도 높다. 문의 02-542-6622

**브레게 클래식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미닛 리피터 7637** 케이스 지름 42mm의 미닛 리피터 시계로, 맑고 청아한 소리로 시간을 알린다. 9시 방향에 라일라 세컨즈, 3시 방향에 24시간 시분 다이얼이 위치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인그레이빙 장식의 핸드와인딩 무브먼트가 구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149-9559

**골든유 어메이징 참 펜던트**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유성, 별, 하트 모티프의 어메이징 참 펜던트를 출시한다. 옉스, 라피스 라줄리, 커널라이트 등 다양한 컬러 스톤을 사용했고, 전·후면의 디자인이 달라 양면 착용 가능하다. 한 체인에 여러 개를 레이아웃하거나 다양한 길이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588-6576



PARIS NEW YORK 서울 METIERS D'ART CHANEL

**사립 파리-뉴욕 2018/19 공방 컬렉션** 지난 12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데두르 신전에서 첫선을 보인 공방 컬렉션을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는 공방 컬렉션은 자수, 꽃, 구두 등 사립 공방이 보유한 창의적인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장. 오는 5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백화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80-200-2700

LIFESTYLE



MONT  
BLANC 



Creating new heights.

새로운 몽블랑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

[montblanc.com](http://montblanc.com)